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김성일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e.kr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공군발전협회 제9차 안보학술회의 개최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 주제로

공군발전협회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후원한 2021년도(제9차) 안보학술회의가 6월2일 공군호텔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역대 공군참모총장 및 예비역, 방산업체 임원, 안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철저한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최됐다. 안보학술회의는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성일 공군발전협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민홍철 국방위원장 축사, 서욱 국방부장관 영상 축사 및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축사,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일 공군발전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의 안보상황은 대단히 복잡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국제관계를 역동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안보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회의가 전환기 안보상황에 대비하여 70여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의 가치를 되짚어 보고 미래 한미 동맹강화를 위한 정예 국방능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미래전쟁 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군사력을 건설함에 있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소중한 유익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공군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핵심으로서 한반도의 역내 안정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 공군 및 우주군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공군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美우주군과의 우주 분야 협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주제발표에서는 숙명여대 홍규덕 국제정책연구원장이 ‘미 신정부의 동북아 전략 쟁점과 전망’을, 한국국방연구원 설인호 팀장이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와 국방안보 전략’을,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김정환 단장이 ‘우주 패권경쟁과 국방우주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지정 토론자에는 남창희 인하대학교 교수, 김태형 숭실대학교 교수, 이성훈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및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학



술회의 참석자들은 우리의 안보상황이 대단히 복잡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국방정책과 미래 정예 국방력 건설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데 공감했다.//

국립 서울현충원 합동 참배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본회는 6월 4일 10시 30분 공군예비역단체인 공사총동창회, 학사장교회 및 전공상 유공자 임원 등 약 30여명과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중훈탑에서 합동참배를 했다.

이날 참석한 회원 모두는 조국을 위해 순국하신 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헌화, 분향 및 묵념 등 참배행

사를 엄숙히 거행하였으며, 합동참배전·후에는 신분별 또는 개인별로 연고묘역을 찾아 옛 전우들의 송고한 넋을 기렸으며, 이날 참석인원은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서울현충원측의 단체별 인원수 제한으로 예년에 비해 합동 참배회원이 적었다.//



고(故) 이근석 장군 추모식

공군전우회 및 공군군 수사령부는 7월 2일 본회 중앙회 임원, 대구지부장 과 대구지역 6.25참전유공 자, 대구기지 지휘관 참모 및 유가족 등 코로나 19 방 역 준수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 (故) 이근석 장군 추모식 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에 이어 고 이근석장군 약력소개, 헌화, 분 향, 추모사, 추모가, 종교의식 순으로 고인 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고 이근석 장군은 초창기 대한민국 항공부대 창설과 전력화 를 주도한 인물로, 6·25전쟁 때는 F-51D 무스탕을 타고 최초의 전투기 출격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이 장군은 1950년 7월 4일 북한군 전차

대열에 포격을 가하던 중 피탄되자 적 전 차를 향해 돌진하여 34세의 나이로 장렬 히 산화했다. 본회 김성일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장 군님의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 받아 그 어떤상황하에서도 조국하늘을 지 켜내는 빈틈없는 영공방위태세를 강화하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군 ROTC 장교회 회장단 내방

본회 산하단체인 공군ROTC장 교회(회장 김형구) 회장단 3 명이 6월 28일 본회를 방문하여 김성일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전우회 발 전 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형구 회장은 공군ROTC장교 회의 일반현황 및 주요 활동상을 간략히 보고하고, 본회 김 회장은 “공군 ROTC 장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치하”하며 “본회 중앙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군ROTC 장교회 회원은 현재 약 4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주한 일본 국방무관 내방

주한 일본 국방무관 겸 공 군무관인 마츠모토 다카시 대령이 5월 3일 본회를 방문 하여 김성일 회장 및 임직원 들과 환담을 나누고 오찬을 함께했다.



코로나19사태로 한일 공군 예비역 단체간의 교류 활동 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일 공군예비역 단체의 근황 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김 회장은 “금년 8월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 장애인올림픽 기간중 IPC집행위원 자격으

로 일본에 체류하게 되는데 그 기간중에 일 본 츠바사회 회장과의 만남을 추진하였으 면 한다”고 무관에게 전했다.//

부산지부

부산지부(지부장 김 중윤)는 6월 6일 현충 일을 맞이하여 지부장 외 운영위원 7명이 부 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UN 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대한민국과 자유수호를 위해 목숨 을 바친 유엔군의 숭고 한 넋을 기렸다.//



KB 국민은행 공군발전협회에 발전기금 전달

KB국민은행 임원진(기관고객 그룹대표 한상건) 5명은 5월10일 공군발전협회를 방문하여 김성 일회장 및 임직원들과 함께 환담 을 나누고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KB국민은행 한 전무는 “공군 발전협회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직접 방문하 여 매년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전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협회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여 국가안보 에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공군발전협회 후원단체 로서 2018년도에 이어 기부금을 후원해 오 고 있다.//

공군사랑회 임원진 내방

공군사랑회(회장 서용길) 임 원진 2명이 5월 25일 본회를 방 문하여 김성일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공군전우회 발전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공군사랑회는 2004년 4월에 공군학사장교회에서 창립된 이후 2012년 4월 공군애호단체 인 공군사랑회로 독립하였으며, 주요활동으로는 공군부대 위문방문, 환경이 어려운 예비역/현역에 위로금 전달 및 탈북민 지원 등을 하고 있

다. 현재 약 11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골프동호회 단체장 친선운동

본회 산하 골프동호회 (회장 이강욱)는 7월 1 일 성남기지 체력단련장 에서 단체장 16명이 참 석한 가운데 친선운동을 함께했다.



이강욱 골프동호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골 프동호회 단체장 및 총 무단 회의/친선운동 및 친선 골프대회 등을 그 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는데 앞으 로 자주 기회를 만들겠다”며 “골프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수원지회

수원지회(지회장 정도진) 산 하 시민봉사단은 6월 23일 시 내에 위치한 수원시자원봉사 센터 추천으로 선킴모터스 에 서 기증한 카니발 승합차를 전 달받았다.



선킴모터스 김광현 회장은 “수원공군전우회 시민봉사단 이 이 차로 더 많은 봉사를 하 기를 바란다”며 “차량에 문제 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리해 주겠다”고 약 속했다.

고 차량을 기증해주신 김광현 선킴모터스 회장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 희 봉사단이 더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로 활 동하겠다”고 했다.//

정 지회장은 “저희 단체를 선정해주신 임속자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께 감사드리

제39대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취임식

공군은 7월 2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박인호 제39대 공군참모총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번 취임식은 행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약식으로 개최하고, 초청 인원도 최소화했다. 행사는 인사명령 낭독, 공군기(지휘관) 이양, 장관 훈시,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박 총장은 취임사에서 고(故) 이 중사와 유가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 뒤 “창군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공군이 처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고 철실하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이 모든 질문과 성찰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법과 규정·제도·매뉴얼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최첨단의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일상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학습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제도와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된다”고 말했다.

신임 박총장은 공사 35기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사관학교장, 국방부 대북정책관 및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합동작전 및 국방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현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콘퍼런스’ 및 전시회

공군은 5월11일부터 13일까지 공군호텔에서 (사)공군발전협회와 함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과 상생도약’이라는 주제로 ‘에어로스페이스 콘퍼런스 2021(Aerospace Conference 2021)’ 및 항공력산업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존에 해왔던 4개 세미나와 포럼을 통합해 올해 최초로 열렸다. △공군-국민대 UAS(Unmanned Aircraft System·무인항공기 및 지원체계) 발전 세미나 △민·군 협력 소요 발전 세미나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열린 우주 포럼이 이번 콘퍼런스에 통합돼 열리는 학술 행사들이다.

첫날 열린 콘퍼런스 개회식에는 군을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공군-국민대 UAS 발전 세미나’에서는 ‘민·관·군이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UAS 발전 방향’을 주



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12일 열린 ‘민·군 협력 소요 발전 세미나’에서는 공군의 중·장기 무기체계 전력화 예정 사업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항공우주력 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10개 기업체가 신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 세미나’가 개최됐다.//

6·25 참전 항공기 “60년 만에 복귀”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역사단)은 6월 8일 “1950년대 공군에서 임무를 마치고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항공공학 교육과 연구에 활용됐던 항공기가 6월 6일, 60년 만에 공군으로 귀환했다”고 밝혔다.

항공기는 LC-195 2대, L-26·L-5·L-16 각 1대 등 총 5대로, 1950년대 군용기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그동안 6·25 참전조종사이자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였던 고(故) 위상규(1926~2008) 교수에 의해 연구 및 교육용으로 활용됐다.

특히, 이번에 인수한 공군 항공기 중 LC-195와 L-16은 현재까지 공군에서 보존하지 못했던 기종이다. 6·25에서 활약하다가 1960년대 민간에 기증됐던 L-5는 당시 민항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항공기다. 역사단과 공군박물관은 지난해 서울대에 공군 항공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지조



사를 통해 그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후 수차례 방문을 통해 서울대 측의 항공기 기증을 이끌어냈다. 귀환하는 항공기들은 공군박물관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 공군은 해당 항공기에 대한 추가 조사와 보존처리를 진행한 이후 전시시설을 건립해 국민에 공개하고, 문화재 등록을 추진해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46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

공군교육사령부(교육사)는 5월31일 교육사 대연병장에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46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관한 380명의 신입장교들은 지난 3월 2일 기본군사훈련단에 입대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의 악조건 속에서도 12주간의 강도 높은 기본군사훈련을 통해 공군 장교로서 갖춰야 할 전투기량과 군인정신,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함양했다. 이번 임관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족 및 친지들이 참석하지 못했으나 임관 명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참모총장 훈시,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순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 특히, 임관식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국방TV 유튜브와 국방홍보원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19전비 비행단 창설 30주년

19전투비행단(19전비)이 5월15일 비행단 창설 30주년을 맞았다. 19전비는 1991년 5월 15일 창설 이래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부대는 강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1996년 이철수 귀순기 유도 작전과 2019년 러시아 군용기(A-50) 독도 영공 침범 시 경고 사격을 통한 퇴거 조치 등 실전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그동안 대통령 부대 표창을 4회 수상했으며, 특히 작년 한 해 제1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안전관리 우수 부대 행안부 장관상을 포함해 총 13개의 부대 표창을 받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공승배(준장) 단장은 “19전비는 대한민국 영공수호



의 최선봉 부대로서 선배 전우들이 남긴 진중보국(盡忠報國)의 정신을 이어받아 완벽한 주 임무 완수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여 30년간 이어온 자랑스러운 비행단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군-KIDA 교류협력위 전체회의

공군은 5월18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공군-KIDA 교류협력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군 정책에 대한 협력 및 공감대 형성을 모색했다. 올해 9회째를 맞은 공군-KIDA 교류협력위원회는 양 기관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국방 현안 공유를 위해 지난 2013년 처음 개최돼 매년 운영되고 있다. 회의는 안보전략, 전력, 인력, 운영, 정보화, 모의 등 6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정상화 공군참모차장과 이호석 KIDA 부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관별 의제 발표와 교류협력 방안 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사 1기 첫 출격 ‘서명문 태극기’ 문화재 등록 예고

공군사관학교(공사)는 6월3일 공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공사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서명문 태극기’가 문화재청을 통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고 밝혔다.

국내 국립박물관 중에서 6·25전쟁 관련 태극기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한 경우는 공군박물관이 처음이다.

이 태극기는 공사 제1기 출신 조종사들이 공군의 최전방 강릉기지로 배속되기 직전인 1952년 12월 5일, 첫 출격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장행회(壯行會)라는 환송식에서 후배 2기 생도들이 선배들에게 선사했다.

이들은 학교를 경기 김포에서 경남 진해까지 옮겨야 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조종사가 된 선배들



에게 ‘조국통일’, ‘임전무퇴’, ‘왜남아’, ‘신념’ 등의 문구를 먹으로 직접 서명해 어깨에 매어 줌으로써, 조국 영공수호의 염원과 비행무운(飛行武運)을 기원하는 마음을 태극기에 담은 것. 등록 예고된 이번 기념물은 30일간 관보를 통해 고지되며 오는 8월 초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